[성남문화재단 공고 제2016 - 107호]

성남문화재단_2016 경기꿈의학교

2016 경기꿈의학교
성남아트센터 꿈의학교 - 뮤지컬로 소리질러!
참가자 선정결과

"성남아트센터 꿈의학교 - 뮤지컬로 소리질러" 참가자 모집에 지원해 주셨던 모든 청소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가자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최종 참가자 명단

순번	참가자 이름	핸드폰 뒷 번호	순번	참가자 이름	핸드폰 뒷 번호
1	이 ○ 희	3792	16	신 ○ 선	1607
2	정 ○ 우	3157	17	배 ○ 나	4367
3	고 ○ 후	1128	18	김 ○ 지	8948
4	이 ○ 빈	7641	19	김 ○ 영	1064
5	엄 ○ 빈	7293	20	나 ○ 빈	4166
6	진 ○ 안	5163	21	이 ○ 영	9454
7	공 ○ 민	0759	22	최 ○ 슬	3154
8	백 ○ 연	7885	23	이 ○ 민	0129
9	오 ○ 경	5735	24	조 ○ 아	4112
10	신 ○ 연	1130	25	이 ○ 재	9885
11	신 ○ 윤	2717	26	문 ○ 영	3936
12	유 ○ 현	2127	27	김 ○ 재	1412
13	장 ○ 진	6658	28	강 ○ 구	7123
14	김 ○ 선	3892	29	조 ○ 진	2061
15	윤 ○ 진	1264	30	홍 ○ 호	1247

※ 향후 일정 및 프로그램 진행 관련 개별연락 드립니다.

□ 예비 참가자 명단

2016년 7월 27일(수) 이내 결원 발생 시, 추가 참가자 순위입니다.

1.이○원(6337) 2.정○영(1929) 3.김○민(4911) 4.한○욱(3314)

2016. 7. 18

성남문화재단

□ 심사총평

성남아트센터 꿈의학교 <뮤지컬로 소리질러>는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 중학교 청소년들이 뮤지컬의 기획, 제작, 운영, 발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올 해는 30명 정원에 45명의 학생이 지원하였다.

올 해 지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수・뮤지컬배우・연출가・작가・의상디자인・무대미술 등 자신의 진로 체험 목적의 지원자들이 가장 많았고, 자신감, 사회성 등 자기성장을 목적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두 번째 특징은 지원자들의 뮤지컬에 대한 이해에 대한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중학생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자기표현이 뚜렷한 학생들이 있는 반면, 자신의 의지로 참가하는지 아니면 부모님이나 주변의 권유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 힘든 소극적인 모습으로 면접에 임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세 번째로 학생 대부분이 연출・음악・댄스・미술・의상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높은 관심과 동아리활동, 창작활동, 연기학원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일정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요즘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다시 읽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수정・중원 등 본도심에 비해 분당과 판교지역의 지원자가 약 7배 정도 많아 향후 남학생과 본도심 지역 학생들의 참가유도 방안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올 해 심사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15일이라는 기간 동안 매일 8 ~ 9시간의 매우 강도 높은 일정에 빠짐없이 충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성실성이었다. 다음으로, 기획부터 공연까지 뮤지컬 전 과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세였다. 뮤지컬에 대한 이해와 재능은 마지막 선정기준이었다. 30명이라는 정원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탈락자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면접 불참자를 포함한 14명이 탈락되었고, 탈락자 중 수업 시작 후 이탈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예비 참가자 4명을 선정하여 가능한 많은 학생들에게 참가 기회를 주기 위해 고민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에 선정되지 못했다고 해서 재능이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비해 더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면접심사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심사 결과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다. 아쉽게 참가하지 못하게 된 학생들은 서운하고 속상하더라도 자신에게 재능과 끼가 없어서가 아님을 명심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 더 높이 날을 수 있는 준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길 바란다.